

대우인터내셔널, 미얀마 천연가스 개발

1단계 2조원 신규 설비투자 ... 나머지 투자는 가스판매 수익으로 충당

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서 천연가스 개발에 나섰다.

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북서 해상과 육상에 천연가스 판매를 위한 생산·처리 및 운송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조957억2000만원을 투자한다고 8월25일 공시했다.

투자기간은 2010년 10월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로 약 4년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.

대우인터내셔널 관계자는 “가스 공급 개시 예정일은 2013년 5월1일이며, 생산기간 동안 하루 5억입방피트의 가스를 공급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또 2조원의 설비투자는 미얀마 가스전의 4단계 시설투자 가운데 1단계인 가스 공급을 위한 육상·해상설비 건설투자로, 2-4단계 투자비용은 가스판매 수익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26>